

· 정답과 해설 ·

중학교 국어 3-2

1 다양한 해석, 자신 있는 표현

(1) 시 읽기의 네 갈래 길 - 백석의 「멧새 소리」

꼭꼭 확인 문제

13~17쪽

1. ③ 2. ④ 3. ⑤ 4. '명태'는 화자의 분신이자 자화상이다. / 화자가 자신을 '명태'와 동일시하고 있다. 5. ② 6. ③ 7. ① 8. 화자와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 주는 작은 길로 해석한다. 9. ⑤ 10. ②, ④ 11. ② 12.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 이 시에는 명태를 말리고 있는 상황과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가 뽕뽕 얼어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멧새 소리'라는 제목을 통해 청각적 심상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공감각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별은 서러웁게 차갑다'라는 시구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혼잣말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고, 명태가 '뽕뽕 얼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은 겨울임을 알 수 있다.
- 시적 화자인 '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식 참고 - 역설적 표현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예 찬란한 슬픔의 봄, 소리 없는 아우성 등

- 시의 앞부분인 1~4행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객관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시의 뒷부분인 5~8행에서는 시적 화자와 명태가 동일시되면서 화자의 모습과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 명태가 뽕뽕 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명태를 동일시하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분위기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② '문턱에 뽕뽕 얼어서'를 통해 화자가 문턱에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멧새 소리'라는 제목은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에 깨끗하고 맑은 멧새의 청각적 울림을 더해 주고 있다.
- ④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린 명태의 부정적 상황은 창작 당시 우리 민족이 당면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이 시의 화자는 뽕뽕 얼어서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려 있는 명태를 보면서 자신도 '문턱에 뽕뽕 얼어서 /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명태'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분신이자 자화상으로 보고 있다.
- ①~③에서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 자체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 이 글에서 「멧새 소리」에서의 제목의 역할은 ②~③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에서는 제목이 청각적 울림을 더해 주고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 준다고 하였고, ③에서는 시의 적막한 분위기와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①에서는 시 「멧새 소리」가 탁월한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해석하고 있고, ②~③에서는 '멧새 소리'라는 제목이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이 글의 글쓴이가 해석한 '멧새 소리'의 의미는, ③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나, 풍자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② 작품의 내용, 시인의 삶, 시대적 배경, 독자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있고, 각각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시 「멧새 소리」를 읽는 재미를 설명하고 시의 깊은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⑦에서 시에 관한 해석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 넣는

이야기에서 완성됨을 말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식 창고 – 풍자

문학 작품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이다.

10. 시 속의 ‘명태’를 4에서는 ‘백석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6에서는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1. 6은 시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 시가 창작될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심했고 우리 민족은 조국과 고향을 떠나 암울하게 살아야 했다. ②는 이 점을 근거로 「멧새 소리」에 우리 민족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2. 7의 ‘제일 커다란 울림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 넣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를 보면,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18~20쪽

1. ① 2. ④ 3.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다. 4. ④

1. 화자는 시적 대상인 ‘명태’를 자신의 분신, 자화상으로 보고 있다. 즉 시적 대상과 화자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1행, 2~4행, 5행, 6~8행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명태를 말리는 모습은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 ④ 시의 앞부분에는 명태를 말리는 객관적인 상황이, 뒷부분에는 화자의 모습과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 ⑤ 4행에 나타나고 있는 ‘고드름’은 냉혹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고, 8행에 나타나고 있는 ‘고드름’은 화자의 쓸쓸함과 고독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④는 글쓴이의 해석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근거이다.
3. 〈보기〉는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시인 백석의 삶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

4. 제시문은 시의 제목 ‘멧새 소리’를 자신의 꿈과 연관지어 자신은 꿈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4~25쪽

1. ⑤ 2. ④ 3. ④ 4. ⑤ 5. 이미지가 탁월하고 의미가 풍요롭다. 6. ③ 7. ③ 8. ‘명태’는 백석 자신의 모습이자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을 의미한다. 9. 시 읽기는 작품에서 출발하여 독자의 내면으로 돌아오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1. 당시 삶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는 있으나 향토색이 드러나는 시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인 ‘나’와 명태가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 ② 꼬리에 고드름이 달린 명태, 가슴에 고드름이 달린 ‘나’의 모습을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 ③ ‘별은 서러웁게 차갑다’에 화자의 서러움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명태 꼬리에 달린 ‘고드름’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2. 비평문은 독자들에게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글이다.
3. (다)~(라)에는 시의 제목인 ‘멧새 소리’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의 제목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찾을 수 없다.
4. ①에는 따뜻한 ‘별’을 ‘차갑다’라고 모순되게 표현하는 역설법이 쓰였다. ⑤는 먼 후일에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반어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모두 부정적 의미의 시어인 ‘어둠’, ‘결별’, ‘슬픔’을 각각 긍정적 의미의 시어인 ‘환희’, ‘축복’, ‘찬란함’과 연결하여 모순되게 표현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③ 임이 ‘갓지마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모순되게 표현하고 있다.

지식 창고 - 반어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법이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속마음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대되게 표현하고 있다.

5. (나)~(라)는 작품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다. (나)에서는 작품의 이미지가 탁월함을 밝히고 있고, (다)~(라)에서는 제목이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가)에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아갔던 시인'이라고 시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작품 해석이다.
④ 작품의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7. (다)에서는 시가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8. 시어 '명태'의 의미는 (가)와 (다)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명태'를 시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다)에서는 '명태'를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9. ㉠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라)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즉 시 읽기가 작품에서 출발하여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할 때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꼭꼭 확인 문제

29~38쪽

1. ② 2. ② 3. ⑤ 4. ④ 5. ③ 6. ③ 7. ① 8. ③

1. '선구'는 발표문을 외우기는 했으나, 그것을 발표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즉 말하기 연습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선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담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모듬 친구들이 '선구'에게 발표를 부탁했을 때, '선구'는 말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2. 실수 없이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화자에게 더욱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말할 내용을 빠짐없이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처럼 발표 연습을 해 보는 것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3. '파리'는 이상보다는 눈앞의 물질적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이는 인물이다.

4. 이 소설의 작가는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눈앞의 욕망보다는 자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상을 이루려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이상이나 신념을 추구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5. '하루살이'는 '불나방'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끈끈이 띠에 붙어 있다가 자정이 되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⑤ '불나방'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와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버리고 있다.

- ②, ④ '파리'는 끈끈이 띠의 아교분을 먹으며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

6. 발표 주제나 자료 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것은 발표문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7. 발표할 때에는 몸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몸을 구부리거나 기대는 자세는 삼간다.

8. 화자와 시선을 맞추면서 발표를 듣고 있음을 보여 주면 화자가 긴장감을 풀 수 있다.

1. ④ 2. ⑤ 3. ② 4.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고, 말하기 연습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5. ① 6. ⑤ 7. ④ 8. 눈앞의 욕망보다 자유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

1. 말하기 준비 상태가 미흡하여 말하기 불안이 생겨날 수도 있으나, 개인의 성향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등도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된다.
2. 말하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실수 없이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말하기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3. 시선, 표정,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말하기를 연습할 때나 실제 말하기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선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또한, 발표문을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기는 했으나 따로 발표 연습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를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5. '불나방'은 자유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일렁이는 촛불'이나 '끈끈이 띠'의 '아교풀'은 유혹의 대상을 의미한다.
 ③ 물질적 욕구나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등장인물은 '파리'이다.
 ④ '파리'는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제시된 글에서는 그것을 '하루살이'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⑤ '하루살이'는 불나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으나, 자정이 될 무렵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6.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눈앞의 욕망보다 자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즉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7.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가치관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가의 창작 의도나 작품 내적인 표현이나 내용,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8. 작가는 '불나방', '파리', '하루살이'의 삶의 방식을 통해 눈앞의 욕망보다는 자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 ③ 2. ③ 3. ② 4. 화자와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5. ①, ③, ⑤ 6. ⑤ 7. ② 8.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을 것이다. 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① 14. ⑤

1. 이 글은 비평문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를 분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미적 경험을 드러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주체적인 관점과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나타나게 된다.
2. (나)~(라)에서는 「멧새 소리」를 표현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태에 대한 묘사'라는 작품 내용과 '화자의 담담한 듯 쓸쓸한 어조'라는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인 백석의 삶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②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④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가)의 제목을 '멧새 소리'라고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를 통해 잘 드러난다.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시의 제목은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에 청각적 울림을 더해 줄 뿐 아니라,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고 하였다.
 4. (라)에서 '멧새 소리'와 '문턱'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안과 밖을 이어 주는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맺새 소리’와 ‘문턱’은 화자와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 주는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가)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며, (나)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다)는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6.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곧 시인 자신이고, 자신을 ‘명태’와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시적 대상에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이 시에 시인의 섬세한 감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② (나)의 해석을 보면 ‘명태’는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시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이 시의 해석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 넣는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다고 하였다.

④ (가)에 제시된 당시 시인의 삶으로 보아, 이 시에는 함흥의 겨울 정서와 명태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다)의 ‘어떤 독자는 어릴 적 건넌마을 혹은 ~ 헤어진 그 누군가를 채워 넣어 읽을 것이다.’를 통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시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안타깝고 쓸쓸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서가 나타난 것은 ②로, ②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죽음을 초월하여 달관한 모습을 보여 주는 시이다.

③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사랑이 끝난 아픔을 스스로 사랑이 되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관심과 애정을 통해 발견하는 세상 모든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8. (나)의 해석으로 볼 때, 당시 우리 민족이 기다린 것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할 수 있다.

9. (나)에서 ‘선구’는 발표를 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부담감을 크게 느꼈고, 그것은 말하기 불안으로 이어졌다.

오답 해설

① 청중은 학급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이 친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② ‘선구’가 겪은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 현상에 해당한다.

③ ‘선구’는 발표문을 외우기는 했으나, 발표 연습을 적절하게 한 것은 아니다.

④ (가)에 ‘선구’가 청중의 반응을 걱정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말하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 내야 한다.

11. (다)에서 청자의 긍정적 반응은 화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떨구거나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화자는 자신의 발표 내용이 청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말하기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2. (나)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④는 고향을 떠나 외롭게 생활했던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② 작품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작품이 창작된 시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13. ‘파리’는 눈앞의 쾌락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유롭게 않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짧지만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자유는 없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와 유사한 유형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눈앞의 욕구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파리'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나방'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불나방'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다.

14. ⑤는 '불나방'의 삶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는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불나방'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 ② 주어진 환경에만 안주하는 '파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 ③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겹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미이므로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④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불나방'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52~53쪽

(1) 시 읽기의 네 갈래 길 - 백석의 「멧새 소리」

1. (나)는 작품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고, (다)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며, (라)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다. 2. 시인이 홀로 머물고 있던 함흥의 겨울 정서와 명태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묘사하였다. 3. 해석: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근거: 시가 창작될 당시는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심했고, 우리 민족은 조국과 고향을 떠나 암울하게 살았다. 4. 〈예시 답〉 나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슴에 고드름을 달고 있는 시적 화자는, 당시 고향을 떠나 외롭게 생활했을 시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예시 답〉 이 시가 창작된 시기인 1938년은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수탈과 강압이 극에 달해 있던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멧새 소리」는 우리 민족이 기다

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다리는 조국 광복의 날이 쉽게 오지 않기에 화자는 가슴에 고드름을 매단 채 문턱을 서성이는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멧새 소리가 들리기에 화자는 고독하고 쓸쓸하지만은 않다. 어둠과 추위가 사라지면 해가 다시 떠오르고 따뜻한 봄이 드는 것처럼 화자는 조국의 광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눈앞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1. 〈예시 답〉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 말하기 불안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2. 청자의 긍정적 반응은 화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 주어, 화자가 준비한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3. 불나방은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하루살이는 인생에 관한 긴 안목을 지니지 못한 사람, 파리는 눈앞의 물질적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4. 〈예시 답〉 나는 파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가장 공감한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않고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시 읽기의 네 갈래 길 - 백석의 「멧새 소리」

1. (나)는 작품의 내용 및 표현, (다)는 시인의 삶, (라)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나)에 나타나고 있는 해석의 방법을 서술하였다.	
(다)에 나타나고 있는 해석의 방법을 서술하였다.	
(라)에 나타나고 있는 해석의 방법을 서술하였다.	

2. 시인의 삶과 관련하여 해석한 내용은 (다)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시인이 머물렀던 함흥의 정서와 명태의 상황을 묘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함흥의 겨울 정서를 드러냈음을 서술하였다.	
명태의 상황을 묘사했음을 서술하였다.	
35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라)는 (가)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한 내용으로, (가)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 반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 근거로 시가 창작될 당시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시가 창작될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을 서술하였다.	
'해석'과 '근거'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4.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 중에서 자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석 방법을 쓰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평가 요소	확인(✓)
자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석 방법을 밝혔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시된 문장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5. 문학 작품의 다양한 해석 방법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되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평가 요소	확인(✓)
문학 작품의 해석 방법과 자신의 경험 및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였다.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200자 내외로 서술하였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1.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불안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있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거나, 말하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자신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요소	확인(✓)
태도나 마음가짐과 관련하여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을 서술하였다.	
5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청자의 반응은 화자의 말하기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청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화자가 긴장감을 풀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청자의 긍정적 반응의 효과를 2가지 이상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3. 불나방은 자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불 속에 몸을 던지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하루살이는 끈끈이 띠에 붙어 움짱달짝 못 하다 자정이 되어 죽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만 살다 죽는다는 습성으로 보아 인생에 대한 긴 안목을 지니지 못한 사람을 상징한다. 파리는 다가오는 죽음을 모른 채 끈끈이 띠에 붙어 열심히 애교풀만 빨아 먹는 인물로 나타난다. 즉 눈앞의 물질적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평가 요소	확인(✓)
불나방이 상징하는 인간 유형을 서술하였다.	
하루살이가 상징하는 인간 유형을 서술하였다.	
파리가 상징하는 인간 유형을 서술하였다.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4. 파리, 하루살이, 불나방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가장 공감하는 인물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한다.

평가 요소	확인(✓)
자신이 가장 공감하는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해당 삶의 방식에 공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2 통일 시대의 우리말

(1) 우리말의 음운

꼭꼭 확인 문제

58~68쪽

1. ③ 2. 공기 3. ③ 4. ② 5. ③, ⑤ 6. 발음, 최고점, 전설
7. ③ 8. ② 9. ① 10. ② 11. ③, ⑤ 12. 입, 코 13. ①
14. ㅂ, ㅃ, ㅍ 15. ② 16. ② 17. ① 18. ②, ③ 19. ④

1. ‘말’(㉠)과 ‘발’(㉡)은 ‘ㅁ’과 ‘ㅂ’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낸 ‘ㅁ’과 ‘ㅂ’을 음운이라고 하는데, 음운 중에서 분절 음운인 자음에 해당한다. 둘은 소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2.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3. 자음은 소리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으며 나온다. ③의 ‘ㅇ’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발음할 때 공기가 방해받으며 나온다.

지식 참고 - 닿소리, 홀소리

자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자음을 ‘닿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홀로 발음될 수 있다. 그래서 모음을 ‘홀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제시된 모음 중 ‘ㅑ’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5. 단모음은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혀의 높이에 따라 모음을 분류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저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ㅏ’, ‘ㅑ’ 두 개다.

오답 해설

① ‘ㅣ’와 ② ‘ㅡ’는 고모음, ④ ‘ㅓ’는 중모음이다.

6. ‘ㅣ’, ‘ㅏ’, ‘ㅑ’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7.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한가 둥근가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원순 모음은 ‘ㅜ’, ‘ㅠ’, ‘ㅡ’, ‘ㅝ’ 네 개이다. ③의 ‘ㅣ’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8. <보기>의 설명처럼 고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모음은 ‘ㅡ’이다.

오답 해설

① ‘ㅣ’는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③ ‘ㅜ’는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④ ‘ㅓ’는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⑤ ‘ㅗ’는 저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9. 여린입천장과 혀의 뒷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ㅋ, ㆁ’이다.

10. ‘ㅁ, ㅂ, ㅃ, ㅍ’은 발음할 때 두 입술이 만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11. 자음은 소리 내는 방식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이중 ‘ㅅ, ㅆ, ㅎ’은 입안이 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마찰음에 해당한다.

12. 비음은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공기가 입뿐 아니라 코로도 나간다. ‘ㅁ, ㄴ, ㅇ’이 비음에 해당한다.

13. ‘ㄹ’은 유음에 속하는 유일한 자음이다.

14.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난 것은 입술소리라는 것이고,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을 말한다. 이처럼 입술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ㅃ, ㅍ’이다.

15. ‘세’에서 모음인 ‘ㅔ’는 단모음이다. 그러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사탕’을 구성하는 모음은 ‘ㅏ’밖에 없는데, 이는 저모음이다.

③ ‘개’를 이루는 모음 ‘ㅐ’는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④ ‘세’를 이루는 ‘ㅔ’는 중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의 특징을 가진 단모음이다.

⑤ ‘요’를 구성하는 모음 ‘요’는 이중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16.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느낌의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17.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과 사람의 신체 기관 중 하나인 ‘눈[眼]’은 글자 모양은 같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자음이나 모음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소리의 길이’와 같은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밑줄 친 다른 말들은 짧게 발음해야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18. ‘ㄴ, ㄷ, ㄹ’은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 모음에,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고모음에는 ‘ㅣ, ㅗ, ㅜ, ㅓ’가 있다.
- ④ ‘ㄴ, ㄷ, ㄹ’은 분절 음운인 모음에 해당한다.
- 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이중 모음인데, ‘ㄴ, ㄷ, ㄹ’은 단모음에 해당한다.

19.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자음에는 비음인 ‘ㅁ, ㄴ, ㅇ’과 유음인 ‘ㄹ’이 있다. 한편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따라서 ‘만남’, ‘나무’, ‘노래’, ‘우리’는 울림소리지만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안정’의 ‘ㄴ’은 안울림소리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72~73쪽

1. ② 2. ③ 3. ④ 4. ⑤ 5. ④ 6. ㄷ 7. ③ 8. ④ 9. ②
10. ⑤ 11. ⑤ 12. ① 13. ③ 14. ④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과 소리의 길이처럼 쉽게 분리되지 않는 비분절 음운으로 구분된다.

오답 해설

ㄴ. ‘강’은 ‘ㄱ+ㅏ+ㅇ’의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ㄹ. ‘말’과 ‘발’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분절 음운인 자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 국어의 분절 음운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데, 자음은 소리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으며 나오고, 모음은 소리날 때 공기의 흐름이 아무런 방해 없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지 여부이다.

3.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모음과, 변화가 있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ㅏ, ㅓ, ㅗ, ㅜ’는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ㅐ, ㅔ’는 단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 ② ‘ㅓ, ㅗ’는 단모음, ‘ㅕ’는 이중 모음이다.
- ③ ‘ㅡ’는 단모음, ‘ㅣ, ㅓ’는 이중 모음이다.
- ⑤ ‘ㅑ, ㅕ, ㅓ’는 모두 이중 모음이다.

지식 창고 - 이중 모음과 반모음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음으로, 독자적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이는 본래 모음을 발음할 때 보다 혀를 입천장에 더 접근시키면서도 자음을 발음할 때 만큼은 접근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이다.

4. ‘ㄴ, ㄷ, ㄹ’은 단모음 중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각각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차이를 보인다. ‘ㄴ’은 고모음, ‘ㄷ’은 중모음, ‘ㄹ’은 저모음이다.

5. 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의 특징을 모두 가진 단모음은 ‘ㅣ’밖에 없다.

6. ㉠은 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 고모음인 모음이어야 한다. ㉠에 들어갈 모음은 ‘ㅓ’이다.

7. ㉡에는 중모음에 해당하는 단모음이 들어가야 한다. 표의 분류 기준에 맞춰 순서대로 나열하면 ‘ㅐ, ㅓ, ㅏ, ㅗ’이다.

8. ㉢에 제시된 자음은 모두 파열음이다. 그러므로 ㉢에서 ‘ㄷ’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자음을 나눌 때 적용한 기준은 ‘소리 내는 방식’이다.
- ③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⑤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눌 때 목청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ㅎ’ 하나지만, 자음을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ㅎ’은 ‘스, ㅆ’과 함께 마찰음에 속한다.

9. 센입천장소리는 센입천장과 혀바닥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며, ‘스, ㅆ, ㅈ’이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ㄷ, ㅌ, ㅌ’은 잇몸소리이다.

10.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㉔와 관련 있는 것은 입술소리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ㅍ, ㅂ, ㅃ, ㅍ’이다.

11. 목청(㉔)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ㅎ’이다.

12. 자음이 비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ㄹ’이 비음이므로 ‘마음’은 비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13.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 이 순서대로 나열된 자음은 ㉔이다.

14. 일상에서 우리는 정확하지 않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흔하게 범하는 실수를 만화로 구성한 것이다. 제시된 상황에서는 손님이 단모음 ‘ㅍ’을 이중 모음 ‘ㅍ’으로 잘못 발음하여 아이스크림 3개가 아닌 아이스크림 세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남북한의 언어와 통일 시대의 국어

꼭꼭 확인 문제

76~82쪽

1.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2. ㉔ 3. ㉔ 4. ㉔ 5. ㉔ 6. ㉔
7. ㉔ 8. ㉔ 9. ㉔

1. 북한의 큰할아버지가 남한에 사는 손녀딸이 보낸 편지를 읽고 통곡했다는 내용을 통해 큰할아버지가 편지의 내용을 읽고 모두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손녀딸의 편지를 읽고 큰할아버지가 통곡했던 이유는 남북한이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남북한은 원래 한민족이며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했지만 분단 이후 오랜 시간 단절되면서 어휘나 표현의 차이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통일 이후의 언어적 혼란을 줄이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지, 남한과 북한 각각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다.

3.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시켜 쓰는 경우가 많다. 남한에서는 외래어인 ‘패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연락’으로 다듬어 쓰고 있다.

4. 남북의 언어는 어휘뿐 아니라 말하기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화에서 남한 사람의 의도는 헤어질 때 하 인사 표현으로, 관계 유지를 위한 친교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북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실제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한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한 간접 화법을 익숙하게 쓰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5. 남북한 어휘 중에는 같은 담화 표현이라도 다르게 쓰이는 말들이 존재한다. ‘-ㅂ시다’의 경우가 그러한데, 제시된 설명을 통해 남한에서는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이, 북한에서는 웃어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남한 점원이 북한 손님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진 이유는 남한에서는 ‘가지가지 한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온 손님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으나 북한어에 대해 잘 모르는 점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7. 남한 점원과의 대화하기에 앞서 북한 이탈 주민이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을 고려하면, ㉠은 '물건이 다양하게 참 많아요.'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8. 신문 기사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을 이루어 탁구 대회에 출전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남한에서는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외래어를 다듬어서 사용하는 북한 선수들의 경우 남한의 경기 용어가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한 선수들도 북한 탁구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를 해 나가며 서로의 탁구 용어에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비해 탁구 강국인지는 알 수 없다.
9.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 이 사전은 통일 이후의 언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편찬하고 있으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한 언어 차이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86~87쪽

1. ⑤ 2. ② 3. ② 4. 괜찮아요. / 좋아요. 5. ③ 6. <예시답>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북한 사람이 식당을 알아봤다고 말하자 남한 사람은 당황하거나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7. ③ 8. 남한의 운동 경기 용어는 외래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한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용어를 다음 어 고유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9. ④

1. 남한에 사는 손녀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쪽의 작은할아버지를 통해 큰할아버지께 편지를 전달했다. 즉, 통일이 되기 전이지만 작은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가 만날 수 있었으므로 ⑤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2. 신문기사를 보면 북쪽의 큰할아버지는 남쪽의 손녀딸이 보낸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통곡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큰할아버지가 통곡한 까닭은 남북이 단일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서(ㄱ), 남북한 사람들은 별다른 통역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기(ㄴ) 때문이다.

오답 해설

- ㄴ. 남북한의 언어는 분단 이후 어휘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ㄷ. 남북한 언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양상은 다르지만 이 기사를 통해 어느 쪽의 높임법이 더 발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가)를 통해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르는 대상을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달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4. 남자가 웃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은 북한 사람들이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괜찮다. 좋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5. 남북한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바쁘다'라는 단어가 북한과 남한에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는 남북한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상황이다. 남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인사말로 관계 유지를 위한 최고의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인데,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간접 화법에 익숙하지 않다.
7. 선생님이 당황한 이유는 남한에서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 '-ㅂ시다'라는 표현을 학생이 자신에게 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ㅂ시다'의 활용에 있어 남한과 북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남한어와 북한어가 어휘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외래어 분야이다.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최대한 다듬어서 사용하는 데 비해,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지식 창고 -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

북한의 한글 전용 정책은 문맹 퇴치 운동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1953년 이후부터는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에 한

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정책은 ‘말다듬기’와 ‘문화어’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그 핵심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일이었다.

9. 『겨레말큰사전』은 단순히 언어의 동질성을 부각하여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 이후의 언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전이다. 이러한 사전 편찬 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남북 통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다른 부분의 차이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90~93쪽

1. ③ 2. ⑤ 3. ④ 4. ② 5. ② 6. ③ 7. ④ 8. ② 9. ⑤
10. ① 11. ‘박박’보다 ‘뽡뽡’이 더 세고 강한 느낌이 든다.
‘ㅂ’은 예사소리이고, ‘ㅍ’은 된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진 것이다. 12. ③ 13. ②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③ 19. ③

1. ‘말’은 ‘ㅁ+ㅌ+ㄹ’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ㅁ+ㄴ+ㄹ’로 이루어진 말이다. ‘말’과 ‘물’을 구성하는 음운은 서로 다르고, 단어의 의미 또한 같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말’은 ‘ㅁ+ㅌ+ㄹ’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ㅁ+ㄴ+ㄹ’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각각 3개씩이다.
②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음운 하나가 빠지면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④ ‘말’과 ‘물’은 모음이 서로 달라 뜻이 달라진 경우이다.
⑤ ‘발’과 ‘말’은 ‘ㅂ’과 ‘ㅁ’으로 인해 뜻이 달라진 경우이다.
2. 같은 형태의 글자라고 하더라도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때 소리의 길이는 쉽게 분리되지 않는 음운이므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言]’은 길게 발음하고, 동물인 ‘말[馬]’은 짧게 발음해야 한다.
3.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순

조롭게 나온다. 이러한 모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는 ④가 적절하다.

4.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과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중 모음에 대한 것으로 ‘ㅏ, ㅑ, ㅓ’는 모두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ㅏ, ㅑ’: 단모음 / ‘ㅓ’: 이중 모음
③ ‘ㅓ, ㅕ’: 단모음 / ‘ㅓ’: 이중 모음
④ ‘ㅓ’: 단모음 / ‘ㅓ, ㅕ’: 이중 모음
⑤ ‘ㅓ, ㅕ’: 단모음 / ‘ㅕ’: 이중 모음
5. ‘ㅓ’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다.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각각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세 모음을 분류한 기준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이다.

6. 모음 중에 단모음, 단모음 중에 저모음이면서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물음에 ‘예’로 답할 수 있는 음운은 ‘ㅓ’이다.

오답 해설

- ① ‘ㅓ’는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② ‘ㅓ’는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④ ‘ㅓ’는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⑤ ‘ㅓ’는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7. 센입천장소리는 센입천장과 혀바닥이 만나서 내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8. 윗잇몸(㉠)은 혀끝과 만나면 잇몸소리를 내는데(㉡), ㄴ, ㄷ, ㄹ은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9. 목청(㉣)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ㅎ’이다.
10. ‘ㅇ’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입뿐 아니라 코로도 나가는 비음이다. ‘ㅇ’ 외에 ‘ㄴ, ㄹ’도 비음에 해당한다.
11.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박박’에는 예사소리 ‘ㅂ’이, ‘뽡뽡’에는 된소리 ‘ㅍ’이 쓰이고 있는데, 이 음운의 차이가 느낌의 차이를 만든다.
12. 제시된 자음은 모두 단모음이다. 이들은 입술 모양이 둥근지 평평한지에 따라 평순 모음인 ‘ㅏ, ㅑ, ㅓ’와 원

순 모음인 ‘ㄴ, ㄹ’로 나눌 수 있다.

13. ‘ㄴ, ㄹ, ㄷ’는 모두 단모음 중 고모음에 해당한다.
14. 북한에서 ‘바쁘다’는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밑줄 친 말을 남한어로 바꾸면 ‘공부하는 게 힘에 부치다.’가 된다.
15. 남한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분단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어휘나 문법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별다른 통역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16. <보기>의 상황으로 볼 때 남한 사람은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르는 대상을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므로 남한어를 소개하기 위해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 남한 사람은 북한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② 남한에서는 ‘낙지’와 ‘오징어’라는 단어가 각각 존재하고 가리키는 대상도 다르다.
- ⑤ 남한에서는 ‘도시락’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북한에서는 ‘곽밥’이라고 부른다. 이것 또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남북한이 다른 예이다.
17. 남한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인사치레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간접 화법에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상황은 ④이다.
18.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남북한 사람들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이질성 또한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두고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94~95쪽

(1) 우리말의 음운

1. ‘세 개’의 ‘ㄱ’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게 발음해야 하는 단모음인데, 이중 모음인 ‘ㄱㅏ’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이다. 2. (가)의 ‘박박’에서 ‘ㅂ’은 예사소리이고, (나)의 ‘빹빹’에서 ‘ㅃ’은 된소리이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때를 미는 동작이 더 세고 강한 느낌이 든다. 3.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면서,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4. <보기>는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자음인 여린입천장소리이다. 5. ㉠(허끝)이 자음을 소리 내기 위해서는 윗잇몸과 만나야 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음으로는 ‘ㄴ, ㄷ, ㄲ, ㅌ, ㄹ, ㄷ, ㅌ, ㅍ’이 있다. 6.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잘’과 ‘줄’의 의미가 다른 이유는 음운 ‘ㄷ’과 ‘ㄴ’이 다르기 때문이다.

(2) 남북한의 언어와 통일 시대의 국어

1. 남북한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남한의 손녀딸이 쓴 편지글을 북한의 큰할아버지가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손녀딸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다듬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운동 경기 중 주고받는 ‘사인’을 ‘표시’로 순화시켜 사용한다. 3. 남한에서 ‘-ㅂ시다’는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데, 북한 학생이 ‘그만합시다.’라고 말해서 당황한 것이다. 4. 여러 가지 물건이 참 많네요. 5. <예시 답>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한다. /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둔다. / 남북한 언어 중 의미 차이가 적은 말을 사용한다. 등 6. <예시 답>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남북 교류가 활발해진 요즘 남북한 사람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등

(1) 우리말의 음운

1. 일상 속에서 단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은 대화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해야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시된 것과 같은 문제 상황이 생긴 이유는 단모음 ‘ㄱ’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움직여 이중 모음으로 발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ㄷ'가 단모음임, 'ㄷ'가 이중 모음임을 파악하였다.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우리말 모음 체계를 고려해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2. 우리말 자음 중 일부는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은 같지만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음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평가 요소	확인(✓)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파악해 특징을 비교하였다.	
소리의 세기의 차이가 어떤 느낌의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3.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 모양 등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모음들은 모두 단모음이고,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평가 요소	확인(✓)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입술 모양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하였다.	
제시된 모음의 특징 두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4.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과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자음들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누면 여린입천장과 혀 뒤쪽이 만나서 만들어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평가 요소	확인(✓)
〈보기〉의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를 파악하였다.	
〈보기〉의 자음을 소리 내는 데 필요한 발음 기관을 파악하였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명칭을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5.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잇몸소리가 만들어지는데, 'ㄴ, ㄷ, ㅌ, ㅊ, ㄹ, ㅍ, ㅅ, ㅆ'이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평가 요소	확인(✓)
잇몸소리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잇몸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을 3개 이상 제시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6.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나누어지는 분절 음운도 있고, 소리의 세기처럼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비분절 음운도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였다.	
음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적절한 예를 들어 음운에 관해 설명하였다.	

(2) 남북한의 언어와 통일 시대의 국어

1. 남한의 손녀딸이 보낸 편지를 북한의 큰할아버지가 읽고 통곡한 이유는 편지의 내용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는 큰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신문 기사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편지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남북한 언어의 동질적 측면에 대해 이해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남한어와 북한어는 어휘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중 외래어 관련된 어휘가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시켜 쓰는 경우가 많고,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확인(✓)
외래어를 순화시켜 쓰는 북한어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예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하였다.	

3. 제시된 상황은 높임법과 관련해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ㄴ시다'는 남한에서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인데, 북한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선생님은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북한 학생의 말에서 어색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같은 표현이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이해하였다.	
선생님이 당황한 이유를 북한어의 특징을 고려해 바르게 서술하였다.	

4. 이 상황을 통해 ‘가지가지로 한다.’가 남한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좋은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게를 둘러보고 난 손님의 마음을 고려해 ㉠을 남한어로 고치면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 물건이 많다.’ 정도가 적절하다.

평가 요소	확인(✓)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손님의 의도를 고려해 북한어를 남한어로 바르게 고쳤다.	

5.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남북한 언어가 이질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6. 『겨레말큰사전』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언어적 노력이 담긴 사전이다. 사전의 취지와 특징을 고려할 때 『겨레말큰사전』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 교류가 활발해진 요즘 남북한 사람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겨레말큰사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지 이해하였다.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겨레말큰사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바르게 서술하였다.	

3 조정하며 읽고, 근거를 들어 토론하기

(1)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꼭꼭 확인 문제

101~106쪽

1. ⑤ 2. ② 3. ④ 4.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개념이다. 5. ② 6. ① 7. ③ 8. 동물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까닭(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복잡한 까닭)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설득하고자 한다.

1.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즉 글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글의 중심 내용은 글을 모두 읽은 후에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2. ①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고 발전해 온 개념’, 즉 ‘역사적·사회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의 ‘자칫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③ ②에서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동물권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 ④ ①의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적·사회적 개념인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②의 ‘동물이므로 당연히 지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3. ‘동물의 권리를 과연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을까?’(ㄴ)에 대한 답은, ②의 ‘동물이므로 당연히 지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장에 나와 있다. ‘우리는 왜 지금 동물

권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까?)(ㄷ)에 대한 답은 ②의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동물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②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졌다고만 했을 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ㄴ. ②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변화했다고만 했을 뿐,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4. ②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듯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은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 ③의 동물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지적 능력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지’라는 구절을 통해 이 글에서는 동물에게도 지적 능력이 있다고 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의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하는지’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③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인권의 핵심 개념’을 언급하였다.

④ ④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유사성이 100퍼센트에 가까운데 반해 동물의 경우는 동물군이나 개체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동물의 범위를 정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⑤ ⑤에서 ‘단지 인간이 그들(동물)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대세’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6. 동물권과 관련하여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관련 기사를 떠올리는 것은 관련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글을 읽기 전의 활동으로 적절하다.

지식 창고 – 세계 동물권 선언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포

된 것으로, 제1조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7. ‘동물권과 관련한 쟁점들’⑤에는 ③에 언급된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지의 문제, ④에 언급된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⑤에 언급된 동물에게 권리라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오답 해설

ㄴ. 동물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는 ③~⑤에 언급되지 않았다.

ㄷ. ⑤에서 동물을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동물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문제는 쟁점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8. ④에서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기가 왜 어려운가를 설명하기 위해 ‘개, 고양이와 새우, 달팽이’, ‘모기나 헬리코박터’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9. 보편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관점은 동물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권리를 논의하자는 것을 말한다.

10. ⑦에서는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대립적인 두 관점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며,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권과 인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정을 주고 온갖 경험을 함께한 내 강아지와 인터넷에서 오늘 처음 알게 된 어느 유명 배우의 고양이’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동물권 논의의 두 관점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ㄷ은 인과, ㄹ은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⑦에서는 모두 쓰이지 않았다.

11. ‘이런 개념’①이란 ‘인권’과 같은 차원의 ‘동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글쓴이는 일반인들이 동물권 논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2. ㉠은 모든 동물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므로 동물권을 보편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보편적 차원의 논의이므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식용 동물, 사육 동물, 산업 동물, 실험동물, 야생 동물 등 모든 동물에 해당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과 같은 논의가 '다분히 시기상조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④ 6에서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을 동물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모든 동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권리를 논의하는 것이므로 개별적 관계가 아닌 보편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13.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가며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은 읽는 중 활동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4.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가 주장하려는 바는 8의 마지막 문장에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여기에서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닌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동물권에 관한 발전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시험엔 이렇게!!

107~110쪽

1. ① 2.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3. ⑤ 4. ③ 5. 동물권의 의미 6. ③ 7. ⑤ 8. <예시 답>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을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

1. 서론에서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
2. 결론에서 글쓴이는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글쓴이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하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이나 읽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에 해당한다.
4. 글을 읽는 중 글쓴이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따져 보며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5. 이 글의 처음인 서론의 소제목은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동물권'으로, 인권과 동물권을 비교하면서 동물권이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개념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첫 부분에서는 '동물권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글을 읽을 때에는 읽기 과정뿐만 아니라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읽기 환경도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글쓴이가 처한 상황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7.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황은 읽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다.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서 적은 시간에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읽기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8. '활동 2'의 제시문을 참고하면, 글을 읽다가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 배경지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읽어야 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23~125쪽

1. ① 2. ② 3. (다), (라), (마) 4. ④ 5.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6. ⑤ 7. ⑤ 8. ③ 9.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0. ⑤ 11. ③ 12.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1. (가)와 (나)에서는 인권과 동물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동물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두 대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

명하는 비교의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2.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이나 글을 다 읽은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한다. 글을 읽기 전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기 전이므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3. (다)는 동물권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 쟁점인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고, (라)는 ‘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를, (바)는 동물에게 ‘권리라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관련된 쟁점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바) 동물권 논의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사)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4.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관점은 (사)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적 관계에 따라 논의하는 관점’은 대상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여 논의하는 관점(ㄷ)이고, ‘보편적 차원에서 동물권을 논의하는 관점’은 모든 동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권리를 논의하는 관점(ㄴ)이다.

오답 해설

ㄱ. (바)에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했으므로,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를 동물로 놓고 논의한다는 것(ㄱ)은 틀린 내용이다.

ㄷ. (마)에서 글쓴이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동물에게 선거권을 주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5. (라)에서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기가 왜 어려운 논의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바)에서는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며, 결국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논의의 출발점이 됨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이다. 하지만 이 글에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끌어와 인용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② 동물권과 관련된 쟁점들,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관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동물권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다.

③ (다)에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두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권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서론에 해당하며, (나)와 (다)는 동물권과 관련된 쟁점들과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관점을 다룬 부분으로 본론에 해당하며, (라)는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룬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한다.

7.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인 (라)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가)에서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의 의미에 관해 설명한 후, (나)와 (다)에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어려운 까닭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서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8. 글을 읽고 난 후 자신이 읽기 전 단계에서 읽는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여 목적을 정한 후 다시 글을 읽었다고 했으므로, 이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읽는 중에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활동에 해당한다.

② 읽은 후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본 활동에 해당한다.

④ 읽은 후에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활동에 해당한다.

⑤ 읽은 후에 글쓴이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활동에 해당한다.

9. (라)는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 제시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동물권을 둘러싼 시사 문제나 동물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활동을 담고 있다. 이는 글을 읽은 후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11. ㉔의 '맺다'는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의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㉔이다.

오답 해설

① '물방울이나 땀방울 따위가 생겨나 매달리다.'라는 의미이다.

② '하던 일을 끝내다.'라는 의미이다.

④ '끄나풀, 실, 노끈 따위를 엮어 매듭을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⑤ '얼매나 꽃망울 따위가 생겨나거나 그것을 이루다.'라는 의미이다.

12. 글을 읽다 보면 읽은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읽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기 과정을 조정하면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논리적인 토론

꼭꼭 확인 문제

132~137쪽

1. ㉔ 2. ㉔: 입론, ㉔: 최종 발언 3. 근거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4. ㉔ 5. ㉔ 6. ㉔ 7. ㉔ 8. <예시 답> 반대 측 토론자는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켜 주세요.

1.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이다. 이 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경쟁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공평하지 않아서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이 입장으로 적절하다.

2. 토론에서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한 다음,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가 입론을 한다. 입론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자기 측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내세우는 것이다. 입론이 끝나면 토론자들이 서로에 대한 반론을 하게 되고, 반론한 후에 최종 발언이 이어진다. 최종 발언은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고,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가 옳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최종 발언 후에는 배심원의 평가를 통해 토론의 결과를 판정하게 된다.

3. 신뢰성은 제시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내세운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경쟁 없이는 발전을 할 수 없다.'라는 근거는 그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4. 토론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토론의 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과 거리가 멀다.

5. 무인 방법 카메라의 감시 기능으로 인해 학생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의 부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근거는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⑤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의 효과를 보여 주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②, ③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하므로, 무인 방법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의 예상 반론에 반박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토론에 참여한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의 토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배심원들의 역할에 해당한다. '반론'은 양측 입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반박함으로써 자기 측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7. 입론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가 논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찬성 또

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기 측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다. 상대측 주장을 경청하며 상대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박하는 것은 반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8. 사회자가 찬성 측의 반론을 들은 순서임을 안내하였으나, 반대 측 토론자는 이러한 사회자의 진행을 따르지 않고 반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가 발언을 하려고 한다.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사회자가 지정하는 대로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켜 토론해야 하는데 반대 측 토론자가 이를 어겼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규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42~144쪽

1. ⑤ 2. ⑤ 3. ② 4. ㄱ, ㄴ 5. • 찬성 측: 경쟁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 반대 측: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6. ② 7.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8. ④ 9. ⑤ 10. 재화는 식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식량 문제를 들어 협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한 점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 토론의 핵심인 반론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대측 의견을 잘 들으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적절한 반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상대측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토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 토론 과정에서는 논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지닌 찬성과 반대 측이 상대측 입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기 측 입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각하면, 배심원은 이러한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사회자와 찬반 양측이 모여 토론할 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전에는 양측이 각자가 지닌 입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에서 토론의 논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로 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찬성 측에서는 경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이나 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경쟁의 불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수남'은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의 본능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으며(ㄱ), 근거의 내용이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서 이치에 맞다(ㄴ)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ㄷ. 경쟁이 아닌 협동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워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수남'이 내세운 반론의 근거는 주장과 잘 연결되고 있다.

ㄹ.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명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아니다.

- 찬성 측의 입론은 (나)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윤'은 경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 측 입론은 (다)에 제시되어 있는데, '경수'는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경쟁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는 그것을 통해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논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나)에서 '지윤'은 상대측이 채용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경쟁 없이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고 반론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채용 같은 경우에도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따라서 '지윤'이 채용과 같은 특별한 상황은 논의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 토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미란'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대개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나)에서 '경수'는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지윤'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채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④ (다)에서 '미란'은 경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쟁을 피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라)에서 '지윤'은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이라고 말함으로써 경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쟁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7. 이 토론에서는 경쟁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찬성 측은 경쟁을 그만두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경쟁은 필요하므로 보완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

8. (가)와 (나)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측에 반론을 펴고 있고, (다)와 (라)에서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이 토론 과정에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주장과 근거가 옳다는 최종 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 사이의 ㉠에서 사회자는 반론을 끝내고 최종 발언이 이어지도록 하는 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

9. 토론은 기본적으로 협력적 말하기가 아니라 대립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지닌 양측의 토론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가 옳음을 내세우며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말하기는 토의에 해당한다.

10. (가)에서 '수남'은 상대측이 한정되어 있는 가치 있는 재화를 얻기 위해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가치 있는 재화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계 식량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재화는 식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식량 문제를 근거로 들어 협력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의 내용이 주장을 긴밀하게 뒷받침하지 못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147~149쪽

1. ④ 2. ① 3. ⑤ 4. ① 5.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6. ④ 7. ④ 8. ⑤ 9. ④ 10.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 토론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한다. 등

1. 글을 '읽는 중'에는 문단별 주요 내용을 메모하며 읽고, 글을 '읽은 후'에 그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은 글을 읽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2. (가)에서는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과 동물권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고 발전해 온 개념인 것처럼, 동물권 역시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ㄱ). (가)~(라)에서는 모두 소재목을 제시하여 글의 주요 내용과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자는 소재목을 활용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ㄴ).

오답 해설

ㄷ, ㄹ. 이 글은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대립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 동물권 자체에 관한 찬반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거나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 글쓴이는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존중과 공존

에 기반을 둔 동물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모든 동물에게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에서 ‘현재의 인권 개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분히 시기상조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글쓴이는 모든 동물에게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글쓴이는 ‘동물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고, (라)에서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 역사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동물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의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개념이 동물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쟁점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가)에서 동물권의 의미를, (나)와 (다)에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어려운 까닭을, (라)에서 동물권 논의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4. <보기>는 글을 읽은 후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을 읽기 전에 읽는 목적을 정하지 않고 읽었다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하여 글 읽기의 목적을 설정한 후 글을 다시 읽었다.

5. 글쓴이의 주장은 (라)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동물권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대립적 관점을 서술한 후, 이제는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보기>에 제시된 토론 절차는 ‘최종 발언’ 단계에 관한 설명이다. (바)에서 ‘미란’은 반대 측의 최종 발언자로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면서 반대 측 입장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에서 ‘지

윤’은 찬성 측의 최종 발언자로서 찬성 측 주장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7. 반대 측은 경쟁은 필요하므로 보완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㉔의 정리 내용은 경쟁의 불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마)에서 찬성 측이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㉔는 반대 측이 아닌 찬성 측 근거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㉔ (나)에서 찬성 측의 ‘지윤’이 제시한 입론의 근거이다.

㉕ (마)에서 찬성 측의 ‘수남’이 제시한 반론의 근거이다.

㉖ (다)에서 반대 측의 ‘경수’가 제시한 입론의 근거이다.

㉗ (라)에서 반대 측의 ‘미란’이 제시한 반론의 근거이다.

8. 찬성 측은 경쟁 대신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친구와 협력하며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므로, 찬성 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경쟁을 없앨 수 없다는 반대 측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② 경쟁의 장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경쟁이 필요하다는 반대 측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반대 측은 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보완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도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반대 측 입장에 해당한다.

9. 반론을 펴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 입장의 논리적 약점이나 오류를 찾아내어 반론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측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대측 말을 듣기보다 자기 측 근거 보완에만 집중하면 제대로 된 반론을 펼 수 없다.

10. (가)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가), (나), (마), (아)에서 사회자는 토론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들에

게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 토론 전반에서 사회자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150~151쪽

(1)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1. ㉠ 동물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 ㉡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 ㉠ 예시를 활용해 내용 이해를 돕고 있어. ㉡ 참고 자료 활용하기 / 국어사전 찾아보기 3. (1)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2) 논리적인 토론

1.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을 하고, 상대측의 입론에 대해서로 반론을 한 후, 양측이 각각 최종 발언을 한다. 2.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3. • 찬성 측 주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반대 측 주장: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경쟁을 없앨 것이 아니라 보안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 4. 상대측 주장과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 측의 입론을 보강하는

(1)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1. (나)는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과연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라)는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나)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고쳐 서술하였다.	
(라)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고쳐 서술하였다.	
(가), (다)의 형식에 맞춰 명사로 끝나게 서술하였다.	

2. (다)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권리'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는 활동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읽기 방법으로, 글을 읽는 중 활용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의 내용으로 예시의 설명 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의 내용으로 참고 자료나 국어사전 등을 찾아보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은 완성된 문장으로, ㉡은 '~기'로 끝나는 명사형으로 서술하였다.	

3. (1)에 대한 답은 (가)에서 찾을 수 있다. 글쓴이는 (가)에서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동물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2)에 대한 답은 (라)에서 찾을 수 있다. 글쓴이는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1)에 대한 답을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에 대한 답을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1)과 (2)의 답을 각각 완성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논리적인 토론

1. 사회자는 (가)에서 찬성 측의 입론에 이어 '반대 측의 입론도 들어 보겠'다고 했고, 양측의 입론이 끝나자 '1차 반론'이 이어짐을 알리고 있다. (나)에서는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이 끝나자 찬성 측의 최종 발언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론, 반론, 최종 발언으로 이어지는 토론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3단계를 토론의 절차에 맞게 서술하였다.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가)에서 반대 측의 '경수'는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며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반대 측의 근거로 '경쟁은 인간의 본능'임을 서술하였다.	
반대 측의 근거로 '경쟁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나)에서 반대 측의 '미란'은 경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보완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최종 발언을 하고 있다. 찬성 측의 '지윤'은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경쟁을 그만두고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 즉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종 발언을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찬성 측의 주장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서술하였다.	
반대 측의 주장으로 경쟁의 필요성 인정과 보완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추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각각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4. 반론의 핵심은 상대방 입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기 측의 입장을 반대 측의 입장에서 강하게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상대측 주장과 근거의 오류, 허점, 약점 등을 지적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자기 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반론의 구체적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였다.	
'오류', '입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하는'의 형태로 서술하였다.	

4 문학에 담긴 어제와 오늘

(1) 묵화(墨畵)

목표 확인 문제

157쪽

1. ⑤ 2. ③ 3. ④ 4. ② 5. '-고'라는 연결 어미와 심표로 시행을 마무리하며 '-고'를 세 번 반복한다.

1. 이 시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 부분인 1~2행에는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 손을 얹는 행동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고, 뒷부분인 3~6행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할머니의 심정이 할머니와 소의 교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화자는 시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할머니가 물먹는 소를 다독이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되어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3~6행은 할머니와 소가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할머니와 소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다양한 감각의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라는 표현에서 할머니와 소가 고된 농사일을 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할머니와 소는 고된 하루를 함께 보낸 후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4~6행에 쓰인 '-고'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 이렇게 둘이 함께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시에는 할머니와 소만 등장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다른 가족을 기르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이 시에는 할머니와 소가 힘겹고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4.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에서는 할머니가 발잔등이 부을 정도로 고된 농사일을 하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적막하다고,'에서는 할머니가 외로

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에서 행을 끝맺을 때 '-고'라는 연결 어미와 심표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고,'의 반복을 통해서는 운율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158~159쪽

1. ② 2. 할머니와 소의 고된 삶이 반복될 것이고, 둘의 교감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3. ② 4. ②

1. 할머니와 소는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하고 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와 소는 힘겹고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할머니와 소는 농사일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할머니가 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 간다고 볼 수 없다.
- ③ '발잔등이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일이 힘들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소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④ 할머니와 소는 힘든 하루를 함께 보냈다. 따라서 소가 농사일을 대신 해 주어 할머니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고된 하루를 마친 후 할머니와 소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뿐,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나오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마침표 대신 쉼표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늘 반복될 것처럼 느껴진다. 즉 할머니와 소의 고된 삶이 반복되고 둘의 교감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3. 묵화는 먹으로 짙고 옅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인 수묵화를 말하는데,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상을 표현하며, 배경색을 따로 칠하지 않아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묵화처럼 이 시도 세부적인 묘사나 구체적인 배경을 생략한 채 절제된 언어로 담담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인물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묵화의 특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할머니와 소는 힘든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고 있으므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삶을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끈기와 인내의 가치보다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63쪽

1. ② 2. ⑤ 3. ② 4. ① 5. ③ 6. 가족 / 친구 / 동반자, 할머니와 소는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 1~2행에서는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 손을 얹는 장면을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고, 3~6행에서는 할머니가 느끼는 고달픔과 외로움이 소와의 교감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2. 4~6행에서는 종결 어미 대신 연결 어미를, 마침표 대신 쉼표를 반복하여 시상을 마무리하였으므로, 4~6행의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③, ④). 따라서 할머니의 태도 변화를 예측한 것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종결 어미와 마침표로 마무리하지 않고, 연결 어미와 쉼표로 끝냈기 때문에 독자는 여운을 느낄 수 있다.
- ② 연결 어미인 '-고'라는 음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할머니와 소의 삶이 고되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점에서 슬픔이 느껴지지만, 할머니와 소가 그 힘든 삶을 함께 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4. 반려견으로 키웠던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은 서로 교감하며 정을 나누고 사는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③, ④, ⑤ 사람이 동물, 식물, 돌, 야생화 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 ①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할머니가 고된 하루를 함께 보낸 소를 위로하기 위해 소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 시절 우리들의 집

국문 확인 문제

167~171쪽

1. ① 2. ③ 3. ④ 4. ④ 5. 아낙이 어느 날 밤 집에서 넷째 아들을 낳았다. 6. ② 7. ⑤ 8. ② 9. ④ 10. 석양의 북새나 굴뚝 연기를 통해 비가 올 날씨임을 예상할 수 있다. / 비가 온 날 저녁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안다. 11. ③ 12. 자연 13. ④ 14. ⑤ 15. '그'의 이야기가 특수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드러내 준다.

1.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산문 문학의 한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②, ③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와 같은 산문 문학, ④는 설명문, ⑤는 논설문의 특징에 해당한다.

2. ③에서 아낙은 저녁상을 차린 후에 아이 낳을 채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④에서 안방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드러누워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을 때 다른 자식들이 아낙 곁에 있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아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산기를 느낀다. 그런 데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저녁 준비를 계속하더니, 저녁상을 다 차린 후에 홀로 아이 낳을 준비를 한 후 안방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를 통해 출산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④에서 아내는 아기를 낳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첫국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 주고 나서는 사립문에 금줄을 매달아 아들의 출생을 알린다. 아내와 남편 각자의 역할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둘의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아기를 집에서 낳은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출산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다.
 ⑤ 아낙은 혼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안방에 누워 아기를 낳았다. 이웃들이 도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①~④에는 아낙이 넷째 아들을 집에서 출산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집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공간, 즉 탄생과 시작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5. ①에서 아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산기를 느낀다. ②에는 아낙의 남편과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③에는 아낙이 저녁상을 차리고 홀로 출산을 준비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④에서는 아낙이 안방에서 넷째 아들을 낳고, 남편은 그런 아낙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어느 날 밤 아낙이 집에서 넷째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6. 이 글에서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 '그의 형제들'과 같은 3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7. ⑤에는 '그'가 태어난 토담집의 건축 과정이 드러나 있다. 먼저 집짓기의 첫 번째 순서로, 판판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어서 나무로 만든 살 위에 흙을 바르고 짚을 엮어 지붕을 완성한 다음에 벽을 만들고, 구들장을 놓아 방바닥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송판으로 마루를 만드는 과정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8. ⑥~⑧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이 토담집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과 함께한 추억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토담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한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을 선명하게 경험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9. ⑦의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에서 '비밀'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다. 집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⑤에서 토담집을 지을 때, 판판한 주춧돌 위에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황토에 논흙을 섞고 짚을 찢어 지붕 흙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② ⑥에서 '그와 그의 형제들은 바로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서 컸다.'라고 하였다.
 ③ ⑥에서 '그'는 '몹시 힘들고 고달픈 도시에서' 생활하

면서 종종 토담집에서의 '소중한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 보고는 했다'고 하였다.

⑤ 5에서 토담집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나면서 손수 지은 집이었다.', '마을 남정네들은 집 짓는 것을 돕고 아낙들은 음식을 만들었다.'에서 알 수 있다.

10. '그'가 토담집에서 깨달아 간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은 '그'가 유년 시절 토담집에서 경험했던 것들로, 8에 두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다. '그'는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비가 올 날씨임을 예상하여 비설거지를 했으며,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11. 9~10에서 '그'는 '그 집'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삶을 통해 오늘날의 집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집'과 달리 지금의 '그'와 '그의 아이'의 집에서는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 아파트로 대표되는 도시의 집에서는 사계절이나 낮과 밤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9~10을 통해 과거의 집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집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며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삶에서 멀어졌음을 알 수 있다.

13. 11~13에서 글쓴이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탄생과 죽음이 있었던 '그 집'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음을 아쉬워하고, '우리들의 집'도 마찬가지로 탄생과 죽음이 없기에 쓸쓸한 집이 되어 버렸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의 '그 집'이 13에서는 '우리들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들의 집', 즉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성주신'은 '집을 다스리는 신'으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5. 12의 '그 집'이 13에서는 '우리들의 집'으로 바뀌으로써 '그 집'에 관한 이야기가 한 집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172~175쪽

1. ⑤ 2. 3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3. ② 4. 이 글에 나타난 집은 일생을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보기>에 나타난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다. 5. ④

1. '그'의 집안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 나타난 토담집에서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삶이다.

2. <보기>에서는 '그'와 '그의 형제들' 등과 같은 3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즉 3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3. 이 글에서 묘사되는 토담집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가는 곳으로,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한 사람의 출생과 죽음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토담집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4. 이 글에 나오는 집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공간이다. 그야말로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보기>에 제시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서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5.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고향을 떠난 초등학교 5학년 때를 회상하고 있다. '명원네 대모'가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장독을 머리에 이고 뒤를 따랐고, '트럭 위에도 대모의 머리에 선택받지 못한 독과 향아리 들'만 집에 남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 모든 장독들을 집에 두고 떠났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장독이 '한 집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장독이 집집마다 존재했고, 그 장독은 한 집안의 존재를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오늘날에는 '길 떠난 가장의 안전을 염원하며 장독대를 닦는 아낙 역시 없다.'라는 서술을 통해 과거에는 어머니가 가족의 안전을 바라며 장독대를 닦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장독대와 함께 떠나보낸 우리 고유의 정과 사랑은 지금 어느 곳을 떠돌고 있을까.’라는 서술을 통해 장독대가 있던 시절에는 우리 고유의 정과 사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79~181쪽

1. ④ 2. ④ 3. ② 4. 오늘날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 / 오늘날에는 대부분 먹을 것을 슈퍼에서 구하지만 과거에는 집의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였다. 5. ⑤ 6. ③ 7. ② 8. ‘그’는 사계절과 아침저녁과 오감이 분명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이는 사계절과 아침저녁과 오감이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 / ‘그’는 자연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이는 자연과 단절된 상태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9. ⑤ 10. ② 11. ② 12. ‘그’에서 ‘우리들’로 시점을 바꾸어 서술하였다. 그러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수필은 일반적으로 글쓰기가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드러낸다. 하지만 이 글은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서술 방식을 통해 이야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낙’은 ‘그’의 어머니이지 글쓰기가 아니다.
② 아낙이 넷째 아들을 낳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아낙의 심리 변화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아낙이 심리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비유적 표현 대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낙의 출산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 (라)에서 남편은 아내가 넷째 아들을 낳자 첫국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 준 뒤, 사립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끼워 대나무에 매달아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매달아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부정한 것의 침범을 막는 우리의 풍습을 보여 준다.
- (가)~(라)에는 아낙이 집에서 넷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넷째 아들을 낳은 곳은, (마)에 나옴이, ‘그’의 부모가 손수 지은 토담집이다.

- 〈보기〉와 이 글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오늘날과 다른 과거의 집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집이 아닌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아낙이 저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먹을 것을 슈퍼에서 구하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먹을 것을 집의 텃밭에서 직접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 (다)에서 ‘그 집’이 ‘그’에게 ‘작은 우주’였던 까닭은,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무한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라는 표현은 집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 (나)의 ‘그 집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나)의 ‘그와 그의 형제들은 바로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서 컸다.’라는 말에서 집이 생명이 탄생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ㄴ). 그리고 (다)의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으며 그래서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라는 말에서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달아 가는 세계였음을 알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ㄷ. 토담집의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이 글에 따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 ㉠은 (다)와 (라)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글쓰기가 유년 시절에 토담집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리킨다. 즉, 이는 자연의 비밀들을 깨닫고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낀 경험들을 의미한다.
- (라)와 (마)에는 과거와 현재의 삶, ‘그’와 ‘그의 아이’의 삶이 대조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뚜렷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이’는 ‘모든 것이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으면서 자연과 단절된 상태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9. 글쓴이는 (다)에서 오늘날의 삶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삶은 과거 토담집에서의 삶과 달리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없고, 자연의 섭리를 따를 수 없기에 모든 것이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집’을 과거의 집과 대조하며 오늘날 아파트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0. (가)와 (나)에는 과거의 집에서의 삶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고, (다)와 (라)에는 과거의 삶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오늘날의 집에서의 삶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마)~(사)에도 탄생과 죽음이 있었던 과거의 ‘그 집’과 탄생과 죽음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집’이 대조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1. 글쓴이는 (바)에서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라고 서술하면서 ‘그 집 안주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 ‘그’가 과거에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서 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집은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 죽음을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12. (가)~(바)는 ‘그’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사)에 와서는 ‘우리들’로 시점을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에 얹힌 이야기가 특정 개인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임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심청전

국문 확인 문제

185~197쪽

1. ④ 2. ⑤ 3. ⑤ 4. ② 5. 뱃사람들이 인당수를 지날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해 15세 처녀를 산다는 말을 듣고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공양미 3백 석을 받았다. 6. ② 7. ② 8. ③ 9. ① 10. 내가 인당수 제물로 팔려 간다는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실 테니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11. ① 12. ⑤ 13. ③ 14. ④ 15.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걱정된다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며 자신의 목숨을 파는 대신 눈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16. ② 17. ⑤ 18. ③ 19. 심청이 배를 타고 가서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20. 공양미 3백 석 21. ④ 22. ① 23. 심 봉사는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라고 말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뱃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비정한 면모를 비난하고 있다. 24. ① 25. ⑤ 26. ② 27. ④ 28. ① 29. ① 30. ② 31. ①

1. 이 글은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2. 앞을 못 보는 심 봉사가 눈을 뜨고 싶어서 몽운사에 쌀 3백 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우연히 어느 중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다. 평소 심 봉사가 심청과 함께 절에 다니며 소원을 빌어 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심청이 자기 몸을 팔고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는 까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백 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 때문에 심청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② 남경 뱃사람들은 바다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당수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15세 처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③, ④ 심청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부처와 같은 신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에 시주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심 봉사는 지나가던 중에게서 쌀 3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앞뒤 생각 없이 덜컥 시주하겠다는 약속을 해 버린다. 그러고는 뒤늦게 이 일을 후회하며 근심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심 봉사가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부족하며 경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심청은 남경 뱃사람들이 15세 처녀를 산다는 말을 듣고 귀덕 어미를 시켜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본다. 인당수에 무사히 지나려면 제물로 사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뱃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공양미 3백 석을 몽운사에 시주한다.
6. 2에서 심 봉사는 심청이 장 승상 댁 노부인의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잘되었다며 좋아하고 있다.
7. 이 글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 3인칭 시점에 해당하는데,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고 전지적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그런데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거짓말로 속여 대답한다.’와 같이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하여 심청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심청을 옹호하고 있으며,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하겠는가.’라며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하여 심청의 심정을 헤아리며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8. 2에서 심청은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이 뱃사람들에게 팔려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걱정할까 봐 아버지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에서 심청은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옷을 지으며 혼자 남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 심청이 아버지를 배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 심 봉사는 심청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인다. 심청이 죽게 되는 마당에 심청의 거짓말을 사실로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심 봉사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심 봉사는 공양미 3백 석을 구하는 대신 심청이 잘 사는 집의 수양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소 심 봉사가 심청이 장승상 댁 수양딸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심 봉사는 자신은 눈을 뜰 수 있고 심청은 고생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좋아하고 있는 것일 뿐, 심청의 말이라 무조건 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심 봉사는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듣기에 괴이하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승상 댁 수양딸로 팔린 거’라서 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긴 어렵다.
- ⑤ 심 봉사는 심청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10. 2에서 서술자는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아버지를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한다.’라고 말했다. 즉 아버지가 사실을 알면 크게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실까 봐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4에는 행선 일을 하루 앞두고 심청이 느끼는 심정이 심청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자신이 죽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와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는 심리적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12. 심청은 자신이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되면 수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는 황천에 계실 테니 죽고 나서도 어머니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며 한탄하고 있을 뿐, 황천에 가 계신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은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심청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떨어지는 해를 붙들고 떠오르는 해를 묶어 두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모습을 통해 심청이 느끼는 절망감과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14. ㉠에는 반복법, 대구법, 연쇄법 등이 사용되었다. <보기>의 ㄱ은 의인법, ㄴ은 대구법, ㄷ은 반어법, ㄹ은 연쇄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에 사용된 표현법은 ㄴ과 ㄹ이다.

오답 해설

ㄱ.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이다. ㉠에는 의인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ㄴ. 반어법은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다. ㉠에서 반어법은 찾아볼 수 없다.

15. ㉣에서 심청은 자신이 죽은 뒤에 홀로 남게 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홀로 남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눈먼 아버지 곁에서 평생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 더 효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에서 뱃사람들은 배 떠나는 날이 되어 심청을 데리고 빨리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심청의 효심과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심청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진것상을 차려 드리도록 배려하고 있다.

17. ㉡에서 ‘(심청은)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심청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꿈에 대하여 심 봉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심청은 ‘저 죽을 꿈’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ㄱ). 이에 심청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반대되는 아버지의 꿈 이야기에 슬픔과 비참함이 더 커졌을 것이다(ㄴ). 하지만 심 봉사는 심청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전혀 모른 채 심청이 장 승상댁 수양딸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ㄴ. 심 봉사의 꿈은 심청이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심 봉사가 심청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심 봉사는 심청이 팔려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ㄷ. ㉡에 나오는 꿈은 심청이 아니라 심 봉사가 꾸는 꿈이므로 심청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에서 심청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진것상을 올린 후 인당수에 제물로 팔려 가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심청이 ‘죽을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꿈의 내용은 뱃사람들에게 제물로 팔려 가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 심 봉사는 공양미 3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자신의 소원인 눈을 뜨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주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뱃사람들 입장에서 공양미 3백 석은 인당수에 바칠 제물인 심청을 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또한 심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데 필요한 재물이기도 하다.

21. 심 봉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서운해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심 봉사는 심청이 죽는다면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어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심 봉사는 뱃사람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그들의 비정함을 비난하고 자신의 소중한 딸을 빼앗아 간 뱃사람들을 원망한다.

③ 심 봉사는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아내와 자식을 잃고 늙은 홀아비로 살아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⑤ 심 봉사는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나?’라고 말하며 딸의 희생으로 자신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죄책감을 느낀다.

22. ㉠에는 ‘마라 마라,(4) 못 하리라.(4) 아내 죽고(4) 자식 잃고(4) 내 살아서(4) 무엇하리?(4)’에서 4·4조의 운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문체가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3. 심 봉사는 뱃사람들을 ‘네 이놈 상놈들’이라고 부르며 욕을 퍼붓고 있다.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서 장사를 하려는 뱃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비정한 면모를 비난하고 있다.

24. 실학사상은 17세기 중엽 이후에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던 새로운 사상으로 「심청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25. ㉓는 이 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영상으로 만들어 내용 이해를 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심청이 제물로 팔려 간다는 것은 안 심 봉사는 딸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심청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줄 공양미를 마련한 것에 대해 ㉒와 같은 질문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27. 뱃사람들은 심청의 효심과 심 봉사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심 봉사의 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과 돈, 의복 등을 마련해 주고 있다.

28.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한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의 모습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 관포지교(管鮑之交)는 '관중과 포숙의 사귀'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인 효와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 해설

㉒ 망운지정(望雲之情)은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하거나 멀리 떠난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며 그리는 정을 뜻한다.

㉓ 반포지효(反哺之孝)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㉔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㉕ 혼정신성(昏定晨省)은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을 이르는 말이다.

30. 승상 부인은 심청이 제물로 팔려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진작 알았다면 도와주었을 거라며 지금이라도 쌀 3백 석을 내줄 테니 뱃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제안

한다.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 승상 부인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는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1.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심청의 모습에서 깊은 효심을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심청은 승상 부인의 제안에 대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뱃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ㄴ). 그리고 한번 정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신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ㄷ).

1. ④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성격의 인물들이다. 3. ④ 4. 효 5. ③ 6. ② 7. 심 봉사의 딱한 처지를 쌀과 돈 같은 물질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까운 비정한 모습이다.

1. 뱃사람들은 심청이 떠나는 날, 심청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혼자 남게 될 심 봉사를 딱하게 여기며 심 봉사를 위해 쌀, 돈, 의복 등을 제공해 준다. 즉 이 재물은 뱃사람들이 심 봉사를 위해 써 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지, 마을에 기부한 것은 아니다.
2. <보기>에서 뱃사람들은 바다를 무사히 왕래하며 장사를 계속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인당수에 바칠 제물이 필요하자, 제물로 삼을 사람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승상 부인은 심청이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되자 심청을 돕기 위해 쌀 3백 석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4.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결정을 한다. 아버지를 위해 유교적 덕목인 효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심청은 자신이 목숨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효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심청이 보여 준 부모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 세대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가정불화가 심해지며 효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해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심청이 효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 ④ 심청이 부모를 위해 자식이 희생하여 몸소 효를 실천하였다.
- ⑤ 심청은 효라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심청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그 잘못을 따져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6. 심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7. 뱃사람들이 홀로 남게 될 심 봉사를 위해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심 봉사에 대한 인간적 배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 봉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딸을 살려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뱃사람들의 행동은 심 봉사의 딱한 처지를 물질로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06~209쪽

1. ⑤ 2. ④ 3. ③ 4.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하는 말로, 심청은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렵고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걱정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마음을 추스르고자 한다. 5. ① 6. ③ 7. ① 8. 날이 새면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9. ② 10. ① 11. ① 12. 심 봉사가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뱃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물이다. / 심 봉사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나?'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뱃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비정한 인물이다. 13. ④ 14. ⑤ 15. ③ 16.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신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한다.

1. (가)에서 심청은 '공양미 3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라고 말하였다. 즉 심 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미 3백 석을 시주해야 할 뿐, 심 봉사가 스님이 될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심청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양미 3백 석을 장만할 길이 없다고 한 것에서 가난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심 봉사가 '양반의 자식으로 몸

을 팔았던 말이 듣기에 괴이하다'고 말한 것에서 심 봉사와 심청이 양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심청은 자신이 제물로 팔려 가는 대신 공양미 3백 석을 얻었다는 사실을 심 봉사가 알면 걱정할까 봐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③ (나)에서 심 봉사는 심청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일 매우 잘되었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④ (가)에서 심청이 뱃사람에게 '내 몸을 팔려 하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십니까?'라고 말하자 뱃사람들은 이를 허락하고 공양미 3백 석을 몽운사로 보낸다.

2. 뱃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인당수에 바칠 제물을 구하러 다닌다. 따라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보기>는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개입하여 심청을 타고난 효녀라고 평가하며, 심청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변호하고 있다.

4. 옆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쏟아 놓은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에서 ㉡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으로 쓰인다. 심청이 자신의 죽음과 아버지와의 이별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다가 ㉡와 같이 말한 까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4조의 운율이 곳곳에서 드러나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 심청이 아버지 옷을 짓는 장면을 서술할 때 '춘추 의복 상침 겹짓, 하절 의복 한삼 고의 박아 지어 들여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라고 표현한 부분, (나)에서 '네가 올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라고 표현한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심청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해 옷을 지으며, 아버지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아버지를 위해 진짓상을 정성스럽게 차려 올린다. 이런 행동을 통해 심청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하는 효성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청이 잠든 아

버지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7. '온전하다'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정신이 온전하다', '마음이 온전하다' 등의 형태로 쓰인다.

8. (나)의 시간적 배경은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약속한, 자신이 제물로 팔려 가는 날의 전날 밤이다. 따라서 날이 새면 심청이 뱃사람들을 따라가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이 새면 나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9. (가)에서 심 봉사는 심청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꾸 꿈이 심청이 수양딸로 가게 되는 좋은 일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즐거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심청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게 되자 슬픔과 절망감으로 절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심청이 곧 죽게 된다는 상황은 (가)와 (나) 모두에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심청은 (가)와 (나) 모두에서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④ (가)에서는 심청의 내적 갈등이 주를 이룬다.

⑤ (가)는 심청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이고, (나)는 심청이 사실을 말한 뒤에 심 봉사가 괴로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가)에서 심 봉사는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될 상황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반찬이 좋고 좋은 꿈을 꾸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 봉사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1.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 ㉠과 같이 둘러대고 있다. 따라서 심청은 그 꿈을 진짜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속마음과는 반대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나)에서 심 봉사는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제물로 팔려 가게 되었음을 알고는 뱃사람들을 맹비난한다.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라고 비난하는 말을 근거로 하면, 뱃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물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심 봉사가 '철모르는

어린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나?’라고 비난하는 말을 근거로 하면, 뱃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비정한 인물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13. (가)에는 심청의 효성에 감동하여 뱃사람들이 혼자 남을 심 봉사를 위해 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나)에는 승상 부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심청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는 부모에 대한 효라는 유교적 덕목이 중시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14. 승상 부인은 심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심청을 돕고자 하는 승상 부인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오답 해설

- ①, ④ 승상 부인은 심청의 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라고 말하며 죽음으로 하는 효보다 심청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승상 부인은 심청을 돕고자 한 것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 한 것이 아니다.
 - ③ 승상 부인은 심청에게 옳지 않은 것에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15. ㉠은 심청이 공양미 3백 석에 제물로 팔려 가는 것을 가리킨다. 심청은 뱃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공양미 3백 석을 몽운사로 보낼 때 이런 사실을 승상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16.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서 깊은 효심이, 뱃사람들이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는 데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이 나타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여기는 태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12~216쪽

1. ③ 2. ⑤ 3. ① 4. ③ 5. 주변 대상과 함께 삶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며 사는 삶의 가치 6. ① 7. ① 8. ① 9. ③ 10. ③ 11. 이제 그는 자연의 변화를 분명하게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 12. ① 13. ②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이 글에서는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 주신 부모의 은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라는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1~2행은 할머니가 물먹는 소 목덜미에 손을 얹은 장면을 묘사하였고, 3~6행은 할머니와 소의 교감을 보여준다. 즉 전반부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후반부에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할머니와 소가 함께 있는 모습은 농촌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적인 풍경이다.
 - ② 할머니와 소의 고단하고 적막한 삶에서 슬픈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정서가 느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행의 길이가 모두 비슷하지는 않으며, 주로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 3~6행을 통해 할머니가 소와 교감하며 살고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3.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에서 발등이 부어오를 정도로 할머니와 소가 고단한 농사일을 함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하루도 / 함께 지냈다고,’에서 할머니와 소는 평소 그렇게 힘든 하루를 함께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는 힘든 하루 일을 마친 할머니와 소의 고달픈 삶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이 하루도 / 함께 지냈다고,’에 쓰인 보조사 ‘도’를 통해, 이렇게 할머니와 소와 함께한 날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처음 깨달은 날이라고 보긴 어렵다.
5. 이 시의 할머니와 소가 힘겹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함께하는 삶, 서로를 위로하고 교감하며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6. 이 글은 일반적인 수필과 달리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를 등장시켜 그의 삶을 독자에게 들려주는데, 이때 그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담담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자연 친화적 삶과는 대조되는 오늘날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토담집’에 얹힌 사연이다. 토담집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고, 그런 토담집에서의 삶과 오늘날 아파트에서의 삶을 대비시켜 토담집에서의 삶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7. 이 글은 글쓴이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 토담집에서의 삶을 통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집의 소중한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토담집에서의 삶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오늘날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8. 이 글에 나타난 ‘토담집’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집의 모습으로, 글쓴이는 과거 ‘토담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 삶의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한다. 〈보기〉에 나타난 ‘장독대’ 역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과거에 집집이 갖춰져 있었던 장독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한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는 장독대가 사라지면서 우리 고유의 정도 사라진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삶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웃 간의 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③, ④ 이 글은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그리움을, 〈보

기〉는 장독대와 함께 우리 고유의 정과 사랑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과 〈보기〉 모두 진정한 가족의 의미나 어머니들의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과거의 자연 친화적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보기〉도 과거 장독대와 함께하며 우리 고유의 정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9. (다)는 ‘그’와 ‘그의 형제들’이 토담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쌓아온 집에 관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라)는 ‘그’가 토담집에서 자라면서 자연의 비밀들을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의 시조도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별한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② 임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인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임’은 고려 왕조의 임금을 뜻하므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까마귀’와 같은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⑤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로, 이 시조에 등장하는 임은 조선의 임금 ‘단종’을 뜻하며 이런 관점에서는 임금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다)와 (라)에서는 토담집에서 자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에서 토담집을 떠난 ‘그’가 현재 ‘그의 아이’와 함께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그’는 토담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다. 하지만 (마)에서 ‘그의 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④ (다)에서 그가 자라난 집은 토담집이라고 했고, (마)에서 그의 아이는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⑤ (사)에서 ‘그’와 ‘그의 아이’가 현재 사는 집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쓸쓸한 집임을 알 수 있다.

11. ㉠의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바로 앞 (라)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과 대조된다. (라)에서 ‘그’가 토담집에서 살아갈 때에는 자연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의 ㉠에서는 ‘그 집’을 떠난 후로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다고 했으므로, ㉠은 자연의 변화를 분명하게 느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아침과 저녁, 사계절과 오감이 불분명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그’가 자연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마)에서 승상 부인이 쌀 3백 석을 내줄 테니 뱃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한 것을 취소하라고 제안하지만, 심청은 그렇게 되면 뱃사람들이 곤란해질 것이고 한번 정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청이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신의를 중시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라)에서 심 봉사는 딸이 죽게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규하기만 할 뿐 딸을 구해 내지는 못한다.
 ③ (라)를 보면, 뱃사람들이 심청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판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 글에는 뱃사람들의 행동을 임기응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마)에서 장 승상 댁 부인은 어려움에 처한 심청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13. (가)에서 심청이 승상 부인의 수양딸로 팔려 간다는 말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심청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라)에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재혁’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마)에서 심청이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승상 부인이 소식을 듣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심청이 승상 부인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찬수’의 말 역시 적절하지 않다.

14. 이 글은 고전 소설로, 과거 조선 시대의 삶의 모습이 반영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배경을 통해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15. ㉠의 ‘죽을 일’이란 심청이 공양미 3백 석을 받고 인당수 제물로 팔려 가는 일로, (라)와 (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6. ㉠의 앞부분에는 심청이 자신이 죽게 될 일과 아버지와 이별할 일에 걱정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다. ㉠의 뒷부분에는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추스르며 ‘아버지 의복 빨래나 해 두리라.’라고 다짐하고 아버지를 위해 옷을 짓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에는 심청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과 어울리는 의미의 속담이 나와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의 속담인 ④이다.

오답 해설

- ①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② 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이다.
 ⑤ 일정한 원칙이 없이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 ㉠에서 심 봉사는 심청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상 부인 댁 수양딸로 가게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이 좋은 꿈을 꾸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가)에서 심청은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하실까 봐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치밀함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보기> 역시 자신을 놓고 기른 부모의 은혜가 크고 깊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은 모두 유교적 덕목인 ‘효’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묵화(墨畵)

1. 할머니는 힘든 농사일을 하며 외롭게 살고 있지만 곁에서 힘든 일을 도와주며 항상 함께해 주는 소가 있어 위안을 얻고 있다. 이처럼 주변 대상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며 사는 삶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세부적인 묘사나 배경을 생략한 채 인생의 고단함과 적막함을 절제된 언어로 담담하게 표현하여 한 폭의 묵화가 연상되고, 여백의 미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3. 매일 반복될 것이고, 할머니와 소의 교감이 지속될 4. 발잔등이 부을 만큼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적막하다고 하는 할머니와 소

(2) 그 시절 우리들의 집

1. 이 글은 3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이야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2. (가)에는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나)에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3.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어진 '그 집'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집에도 탄생과 죽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심청전

1. 홀로 남게 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제물로 팔았고, 자신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다며 평생 죄책감에 괴로워할 심 봉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뱃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때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3. 심 봉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딸을 살려 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뱃사람들의 행동은 심 봉사의 딱한 처지를 물질로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묵화(墨畵)

1. 이 시는 할머니와 소가 힘겹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주변의 대상과 삶을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며 사는 삶의 가치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위로', '교감', '함께'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가치를 서술하였다.	
할머니와 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시에 담긴 할머니와 소의 삶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2. 이 시에는 할머니와 소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할머니와 소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렇게 세부 묘사나 배경을 생략한 채 할머니와 소의 고단한 삶을 절제된 언어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상을 표현하는 묵화를 연상시킨다. 시인이 이 시의 제목을 '묵화'라고 지은 까닭도 이러한 특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생략', '절제된 언어', '담담한 표현', '여백의 미'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완성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고'라는 연결 어미와 쉼표의 반복이 주는 효과를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4~6행의 내용인 할머니와 소와의 교감이 앞으로도 반복되고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반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주제와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빈칸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하였다.	

4. 이 시에서 느껴지는 슬픈 분위기는 할머니와 소가 힘들고 고단한 삶,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들의 고달프고 적막한 삶을 근거로 들어 서술해야 한다.

평가 요소	확인(✓)
슬픈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시에 표현된 삶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빈칸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하였다.	

(2) 그 시절 우리들의 집

1. 이 글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수필의 특징과 달리 글 속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이런 독특한 서술 방식을 통해 이야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3인칭 시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나'가 아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라고 서술하였다.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표현 효과를 서술하였다.	

2. (가)에는 ‘그’가 자연의 비밀들을 깨달아 가면서 과거 토담집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반면 (나)에는 아침과 저녁, 사계절 등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아파트에서의 삶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 삶에 관해 서술하였다.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삶에 관해 서술하였다.	
‘반면’ 또는 ‘하지만’ 등의 접속어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대조적으로 서술하였다.	

3. (다)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 집’의 변화는,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 집’에는 더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 또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탄생과 죽음이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집에서도 탄생과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들의 집을 쓸쓸한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그 집’에 일어난 변화를 서술하였다.	
변화된 ‘그 집’과 ‘우리들의 집’의 공통점을 서술하였다.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심청전

1. (가)에는 심청이 자신이 죽고 난 후 혼자 남게 될 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에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백 석에 자신의 몸을 팔았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심 봉사가 절규하는 내용이 나온다. (가)의 내용은 아버지가 걱정된다면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의 내용은 자신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하는 심 봉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심청의 행동은 진정한 효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제시된 해석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서술하였다.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근거를 모두 서술하였다.	
완성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나)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 돈을 주고 심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온다.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으로, 이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평가 요소	확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 관해 서술하였다.	
완성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다)에는 뱃사람들은 심청의 효심과 심 봉사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심 봉사를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부정적·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심 봉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심청을 데려가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물질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뱃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뱃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뱃사람들의 행동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5 다르게 보고, 바르게 쓰기

(1)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

국문 확인 문제

225~231쪽

1. ③ 2. ② 3. ④ 4. ⑤ 5. ④ 6. ④ 7. ①, ③ 8. 인간에게 사유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9. ① 10. ② 11. ② 12. ⑤ 13.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나며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14. ① 15. ① 16. ⑤ 17. ②

-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겪은 일상의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깨달음을 글쓴이의 개성을 담아 자유롭게 쓴 글이다.

오답 해설

①은 희곡, ②는 소설, ④는 시, ⑤는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 글쓴이는 볼일을 보기 위해 산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시로 나와 우체국과 시장 등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가는 버스 편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으로 가는 버스를 일단 탄다. 그리고 도중에 내려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십 리 길을 걸은 것이다.
- 글쓴이가 초겨울의 들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광주에 와 볼일을 본 뒤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 시간이 맞지 않자 다른 곳으로 가는 차를 타고 도중에 내려 삼십 리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
- 글쓴이가 어떤 관점으로 '걷기'를 보는지를 파악하였는지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②와 ③에서 걷기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도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날 뿐 도시에 적응하지 못해 산에서 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글쓴이가 승려임을 고려할 때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길벗은 오히려 부담되어 혼자 걸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길벗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혼자 걷기를 즐

기는 것이 아니다.

③ 글쓴이는 도시의 삶은 시끄러움과 먼지를 일으키며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도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글쓴이가 걷기의 단점을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보기〉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와 독자의 관점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글의 관점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글쓴이는 삼십 리 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새나 짐승, 곤충들도 저마다 기댈 곳을 찾아 부지런히 길을 간다고 여기며 그 길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새나 짐승, 곤충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글쓴이는 우리가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자동차로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만큼 귀중한 걸음과 생각의 자유를 빼앗겼으며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⑤ ④를 보면, 글쓴이는 멈추어 있을 때와 달리 걸으면서 궁리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글쓴이는 삼십 리 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걷기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 글쓴이는 ④에서 칸트나 베토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철인과 예술가들이 산책을 즐겨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⑦에서는 한 시인의 글을 제시하여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깊이 생각하며 걸을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④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걷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하였다. 이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걷기의 가치가 담긴 말로, 이를 통해 글쓴이가 걷기가 인간에게 사유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이 글은 걷기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설명 대상인 걷기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촌평에 대한 설명이다. 촌평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드러내는 글을 말한다.

④ 이 글에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10. 이 글의 '중간 1'에서 글쓴이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11. 2에서 글쓴이는 걷기 운동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높여 동맥 경화를 막아 주어 심장병,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걷기 운동이 모든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②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은 ③, ③, ⑤는 ①, ④는 4에서 알 수 있다.

12. 2~4에서 글쓴이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문단별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내용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다. 즉 세 문단 모두 의학적으로 인정된 내용들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글쓴이가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까닭은 ㉠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글의 형식이 지니는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여 이해하고 읽을 때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5. 이 글의 글쓴이는 걷기 운동을 추천하기 위해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6. 걷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정보는 5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발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다음 발바닥 전체가 닿은 뒤, 마지막으로 발의 앞 끝이 들리는 순서로 걸어야 한다.

17.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걷기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걷기의 효과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232~235쪽

1. ⑤ 2. ⑤ 3. 설명하는 글은 걷기의 효과와 방법을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기에 적절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4. ④ 5. ①

1. (나)에서 걷기는 하체뿐만 아니라 두뇌를 포함한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 (가)의 글쓴이는 '걷기'를 체험하며 삶을 돌아보면서 걷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걷기'를 건강을 위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의 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 모두 '걷기'라는 공통 화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설명하는 글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나)의 글쓴이는 걷기의 효과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려고 설명문 형식을 선택하였다.

4. 이 공익 광고에서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걷기나 자전거만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광고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다.

② 이 광고는 공익 광고이다.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잘못된 점을 반성하게 한다.

③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근거로, 걷기를 통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인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광고에는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 있으므로, 광고에 나타난 관점을 주장하는 글 형식으로 표현해도 효과적일 것이다.

5. 신문 기사에서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성을 지닌다.'라고 하고 있고, 편지글에서도 '물론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두 글의 글쓴이들은 '영화는 허구성을 지닌 예술 작품'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④, ⑤는 신문 기사 내용과, ③은 편지글의 내용과 관련된 진술이다.

1. ④ 2. ③ 3. ⑤ 4. 글쓴이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깨달은 내용인 걷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썼다. 5. ② 6. ⑤ 7. ③ 8. ② 9. ⑤ 10. ① 11. ⑤ 12. (가): 걷기는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나): 걷기 운동은 올바른 자세와 강도가 중요하며,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 (라)에서 글쓴이는 사유의 뜻과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걷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걷기는 인간에게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라)의 내용이다.
- 글쓴이의 관점이란 글쓴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 태도 등을 말한다. 글쓴이는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글의 형식을 선택하는데, 이 글이 수필임을 고려할 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글에 매체 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글의 관점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걷기가 운동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운동이라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는 (나)에서, ③은 (라)에서, ④는 (다)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은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 깨달음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인 수필이다. 이 글의 글쓴이가 수필이라는 형식을 통해 글을 쓴 까닭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 깨달은 걷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오답 해설

①은 건의문, ③은 보고문, ④는 주장하는 글, ⑤는 기사문을 쓰는 목적에 해당한다.

- (다)를 보면, 걸을 때에는 상체를 바로 세우고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이며 걷는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나)에서, ②는 (가)에서, ③은 (마)에서, ④는 (라)에서 각각 알 수 있다.

- (마)에서 글쓴이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300킬로칼로리를 소비하는 데 충분하다.’와 같이 수치를 활용해 강조하고 있다.
- (라)에서는 걸을 때의 보폭과 빠르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운동의 센 정도를 의미하는 ‘강도’이다.
- (가)와 (나)는 모두 ‘걷기’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걷기의 가치는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가)는 걷기를 사유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보고 있고, (나)는 건강을 위한 운동의 측면에서 걷기를 바라보고 있다.
- 〈보기〉는 (가)와 (나)의 형식을 비교하여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생각이다. 주제를 감동적으로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하는 글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설명하는 글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나)의 글쓴이는 걷기의 효과와 방법을 구체적, 사실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형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 대상은 동일하지만 관점과 형식이 다른 글을 비교하여 읽으면, 대상에 대하여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 (가)의 글쓴이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걷기의 가치를 서술하고 있으며, (나)의 글쓴이는 걷기의 올바른 자세와 실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 쓰기 윤리와 보고하는 글 쓰기

꼭꼭 확인 문제

1. ④ 2. ② 3. ③ 4. ㄱ, ㄴ, ㄷ 5. ⑤ 6. ⑤ 7.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8. ㄴ, ㄷ, ㄹ 9. ⑤ 10. ⑤ 11. ④ 12. ①

- 블로그 글에서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 매체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임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따옴표(‘ ’), 큰따옴표(“ ”)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내가 만든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③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를 인용할 때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제시해야 한다.
- ⑤ 전문적인 작가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도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식 창고 - 표절과 패러디, 그리고 저작권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패러디’는 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면적이거나 소비적인 모방이 아닌 입체적이면서 생산적인 모방이라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따라서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특별한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러디를 할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조사한 결과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은 보고서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예상했던 결론과 다르더라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보고서는 ‘계획 세우기 → 자료 수집하기 → 자료 정리 및 분석하기 → 보고서 쓰기’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 5. 조사 계획서는 조사를 계획하는 단계에 쓰는 것이므로, 여기에 조사 보고서 작성 후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절차 중 ‘자료 정리 및 분석하기’에 해당한다.
- 7. 주로 시각 자료로 많이 활용하는 그래프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나 분포 양상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 8. 이 보고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계청·여성가족부’ 등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ㄴ). 또한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표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ㄹ).

오답 해설

ㄱ.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보고서이다.

ㄴ. 설문 조사, 문헌 자료 조사, 면담, 통계 자료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9. 보고서의 내용은 독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 조사 방법과 결과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 10. ‘우포늪의 개발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는 ‘우포늪의 생태계 보전’이라는 조사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면 보고서 쓰기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 11. 보고서에서 통계 자료를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다.
- 12. 보고서의 조사 방법은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60~261쪽

1. ② 2.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다. 3. ⑤ 4. ③ 5. ② 6. ④ 7.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와 그 양상을 조사하고 여가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8. ③ 9. ③ 10. ①

- 1. 전문적인 저작자의 창작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누구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 2. (나)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힘으로써 인용한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3. 보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와 드러나도록 쓰는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체계적인 글이다.
 ② 보고서는 절차와 결과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개성과 특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라 할 수 없다.
 ③ 보고서는 관찰, 조사, 실험 내용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 등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쓰는 글은 논설문이다.
 ④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한 과정과 결과를 적은 글이므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작성할 수 있다.
4. 보고서 작성 과정은 '계획 세우기 → 자료 수집하기 → 자료 정리 및 분석하기 → 보고서 쓰기'이다.
5. 조사 내용에 대한 요약은 보고서 구성 단계 중 '끝' 부분에서 제시한다.
6. 실험이나 관찰, 조사 등을 할 때 그 결과나 분석 내용을 목표에 맞춰 수정하는 것은 자료 왜곡에 해당한다. 이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쓰기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7. (가)의 뒷부분에 '여가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를 탐구하였다.'며 보고서의 '조사 주제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8. (나)는 조사 결과를 적은 것이므로 구성 단계상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9. 이 보고서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나)의 (1)은 인터넷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조사한 것이고, (2)는 체육 선생님과 의견 면담 조사 결과이다. (다)는 통계청의 통계 자료 조사이고, (라)와 (마)는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이다.
10. (라)와 (마)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64~268쪽

1. ⑤ 2. ④ 3. ① 4. ② 5. ④ 6.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근거로 활용해, 견기를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인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⑤ 8. (가)는 신문 기사이고, (나)는 편지글이다. (가)의 신문 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보도하기에 적절한 형식이고, (나)의 편지글은 특정 대상에게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듯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9. ③ 10. ④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 실태, 희망 여가 시간과 희망 여가 활동을 각각 보여 주는 원그래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도록 전달할 수 있다.

1. (다)는 광고문으로, 짧은 문구와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핵심 내용만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가)는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서술한 수필이다.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쓴 글은 소설과 같은 산문 문학의 갈래상 특징에 해당한다.
 ② 글쓴이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은 (나)이다.
 ④ 촌평에 대한 설명이다.
2. (나)의 글쓴이는 인간은 체온 유지나 심장 박동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일정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고 있다.
3.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알았다고 해서 글쓴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알면 대상을 보는 글쓴이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관점이나 의도를 알아야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④ 관점이나 의도를 알면 글쓴이가 대상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지식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가)의 글쓴이는 걷기를 체험하며 삶을 돌아보았고, 이를 통해 걷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기에는 주장하는 글보다는 수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5. ㉠은 글쓴이가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걷기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걷기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라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때 뒷받침 내용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어야 한다. (나)의 글쓴이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이때 수많은 운동 중에서 몸에 좋은 운동을 추천하려면 걷기를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운동 중에서 걷기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다)는 광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으로 걷기를 바라본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주장하는 글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근거로 활용해 걷기를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인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가)와 (나)의 글쓴이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 글 형식을 달리하여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보다 (나)의 글 형식이 글쓴이의 관점을 더 잘 드러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②, ③, ④ (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일지라도 영화 내용이 실제 역사랑 똑같을 수는 없다는 관점을, (나)에서는 영화 속 역사적 사실은 왜곡되면 안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8. (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신뢰를 얻고 있는 신문 기사이고, (나)는 자기 생각을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

듯 말하고 있는 편지글이다.

9. 이 글의 글쓴이는 쓰기 윤리 중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쓰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같다고 하고 있다.

10.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비슷하게 베낀 것은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지식 창고 - 표절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 등을 마음대로 베껴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11. <보기>의 대화에서 서진이는 자신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다. 이는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어기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2.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조사자들이 한 자료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 인터넷 백과사전 조사, 면담 조사, 통계 자료 조사이다. 현장 답사와 같은 조사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를 조사해 여가의 중요성을 탐구한 보고서이다.

② 이 글은 보고서의 구성 요소인 조사 주제 및 목적,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조사 결과, 평가 및 소감, 참고 자료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④ (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제 여가 활동인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텔레비전 시청'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⑤ (라)의 평가 및 소감을 보면, (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 시간과 그 활동 양상을 우리 학교 학생들과 비교·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조사 주제 및 목적'을 보면, 이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를 탐구하기 위해 쓴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14. 이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자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조사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덧붙일 수 있다.

15. (나)에 나와 있는 설문 조사 대상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생에게 설문지를 일일이 나눠 주고 조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다)의 조사 결과에서는 백과사전을 활용해 여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다)의 조사 결과에서는 면담을 통해 여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체육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④ (나)의 ‘(2) 설문 조사’ 대상 및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3) 오늘날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 활용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낸 시각 자료로서, 문자로만 전달할 때보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69~270쪽

(1)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

1. (가)의 글쓴이는 걷기를 체험하면서 삶을 돌아보며 걷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걷기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의 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2. 〈예시 답〉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요즘,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라는 관점을 광고문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광고문은 걷기에 대한 이런 관점을 인상적인 문구와 시각 자료로 표현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 3. 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다. 등

(2) 쓰기 윤리와 보고하는 글 쓰기

1. 조사 주제,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을 정한다. 2. 조사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조사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등 3.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희망하는) 평일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여가 시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1)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

1. (가)의 글쓴이는 걷기를 체험하며 삶을 돌아보았고 이를 통해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걷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걷기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의 한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걷기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두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을 바르게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8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공익 광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관점으로 글을 쓰기에 적절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광고문은 짧은 문구와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핵심 내용만을 인상적으로 전달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평가 요소	확인(✓)
(가), (나)에 담긴 공통된 화제에 대해 다른 관점과 다른 글 형식을 제시하였다.	
정해진 관점에 효과적인 글 형식을 적절한 까닭과 함께 제시하였다.	
맞춤법과 문맥에 맞게 서술하였다.	

3. 글의 관점과 형식 비교하며 읽기의 의의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면 된다.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관점과 형식 면에서 어떤 특성과 효과를 지니는지 파악하며 읽으면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글의 관점과 형식 비교하며 읽기의 의의를 바르게 제시하였다.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둘 이상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쓰기 윤리와 보고하는 글 쓰기

1. 제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조사 주제,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조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대화 내용에 담긴 항목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보고서는 조사나 관찰, 실험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한다.

평가 요소	확인(✓)
쓰기 윤리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쓰기 윤리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A]는 '질문 3'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나타낸 조사 결과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평일 여가 시간과 희망하는 여가 활동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설문지 질문은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희망하는) 평일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여가 시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정도일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A]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질문 1, 2'와 같은 높임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